즉시 배포용: 2025년 12월 6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뉴욕 고령자를 위한 부동산세 면제 승인

법안 S5175A/A3698A, 일부 고령자에 대해 최대 65%까지 부동산세 면제를 허용하도록 지자체에 권한 부여

중산층 뉴욕주민을 위한 감세를 포함한 주지사의 경제성 의제에 기반

Kathy Hochul 주지사는 뉴욕주의 고령자들을 위한 부동산 세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법안 S5175A/A3698A는 지자체가 소득 자격 요건 등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고령자에게 부동산 과세 기준가액의 최대 65%까지 재산세 면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중산층 뉴욕주민들을 위한 세금 감면을 포함한 주지사의 경제성 의제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의 어떤 고령자도 재산세를 감당할 수 없어서 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안에 서명함으로써 우리는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뉴욕의 고령자들이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이 익숙하고 사랑하는 지역사회에서 집에 머물며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에서 정한 최대 소득 자격 기준 이하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최대 65%까지의 부동산세 면제를 제공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이전에 지자체가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었던 최대 감면 비율은 50%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수십 년 동안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면제 비율을 50%에서 65%로 상향 조정하면 평균적인 노년층에게 연간 최대 300달러의 절감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노령화 사무국(New York State Office for the Aging, NYSOFA)의 Greg Olsen 부국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Hochul 주지사께서 또 한 번 개인과 그 가족들이 뉴욕에서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도록 힘써주고 계십니다. 재산세는 특히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종종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80만 명이 넘는 노년층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이 중요한 법은 앞으로도 노년층이 자신이 선택한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들의 막대한 기여가 뉴욕주 내에 남아 있도록 할 것입니다."

Leroy Comrie 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인들은 주로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면서 주거비와 물가 상승에 직면해 왔습니다. S5175A 법안에 서명하여 법제화하는 것은 뉴욕 전역의 노년층에게 진정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한 걸음입니다. 이 법은 지역사회가 자격을 갖춘 고령자들에게 최대 65%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오랜 기간 거주한 주택 소유자들이 존엄성과 안정감을 가지고 자신이 속한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님과 동료들, 그리고 특히 이 주를 건설하는 데 기여한 뉴욕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함께 힘써주신 David Weprin 하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David Weprin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뉴욕 주민, 특히 우리 고령자 주택 소유자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힘써 주신 Kathy Hochul 주지사님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 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는 증가하는 부동산세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저소득 고정 수입을 가진 고령 주택 소유자들에게 안정성을 보장할 것입니다. 저는 Hochul 주지사님과 동료 선출직 지도자들과 계속해서 협력하여 이 중요한 주거비 부담 완화 의제를 추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 법안은 Hochul 주지사의 경제성 의제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중산층 세금 감면: 약 830만 명의 뉴욕 주민들이 세율 인하의 혜택을 받게 되며, 중산층의 세금은 7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아동 세액공제 확대: 아동 세액공제가 2026년부터 만 4세 미만 아동 1인당 최대 1,000달러, 학령기 아동 1인당 최대 500달러로 인상됩니다.
- 인플레이션 환급 수표: 자격이 있는 뉴욕 주민들은 1인당 최대 200달러 또는 가족당 400달러를 받았으며, 이는 820만 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 무상 급식: 이제 모든 K–12 학생들은 무료 아침과 점심을 이용할 수 있어, 가정당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1,600달러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주지사 사무실에 업데이트 신청하기: ny.gov/signup 81336번으로 NEW YORK 이라는 문자 메세지를 보내세요

구독 취소